

# 챔피언스필드 '대박'...KIA 하기 나름



지난 16일 광주 새 야구장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4프로야구 시범경기 KIA-두산전에 2만여명의 관중이 몰렸다. 한국 프로야구는 올해 700만 관중 돌파에 도전한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프로야구 700만 관중시대 다시 한번

### 9개 구장 신·증축 완료...관람객 편의 높여 FA 선수 이동·전력 평준화 등 '흥미진진'

2014시즌 프로야구가 700만 관중 돌파에 도전한다. KBO(한국야구위원회)가 25일 2014 프로야구 관중 유치 목표를 발표했다. 올 시즌 9개 구단은 페넨트레이스 목표 관중을 701만9680명으로 잡았다. 경기당 평균 관중은 1만2187명이다. 이는 지난해 입장 관중인 644만1945명(경기당 평균 1만1184명)보다 9% 증가한 수치다.

목표가 이뤄진다면 2012년에 이어 두 번째로 700만 관중을 넘어설게 된다. 2012년 프로야구 그라운드에는 715만6157명이 찾으면서 한국 프로스포츠 사상 첫 700만 관중이라는 역사가 쓰여졌다. 프로야구 흥행의 중심 KIA 타이거즈는 67만2000명을 목표로 삼았다. KIA의 역대 최대 관중은 2011년 작성된 59만2669명이다. KIA는 챔피언스필드에

서의 역사적인 첫 해 구단 역대 최대 관중에 도전할 계획이다. 지난해 11년 만에 가을잔치를 벌이며 흥행을 주도한 LG 트윈스는 124만명을 목표로 해 최대 관중 1위에 도전한다. LG는 지난해 128만9297명을 안방으로 불러들여 최대관중 1위를 기록했다. 잠실라이벌 두산도 115만명을 목표로 해 700만 돌파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잠실 관중의 변수는 입장인원의 변동이다. 익사이팅존 신설과 좌석 개보수 등으로 최대 입장인원이 2만7000명에서 2만6000명으로 줄어들면서 두 구단 모두 목표치를 낮추게 됐다. 지난해 급격한 관중감소에 올랐던 롯데는 100만 관중을 목표로 해 자존심 회복에 나선다. 지난해 시즌에는 77만731명이 찾는데 그쳐 6년 연속 100만 관중 돌파가 무산됐다.

안방인 문학구장을 단장한 SK 역시 올 시즌 100만 명을 목표로 팬심 잡기에 나선다. 3차 리모델링을 통해 한밭야구장을 새로 꾸민 한화도 지난해보다 21.5% 증가한 47만8000명을 목표로 삼았다. 프로 첫 해를 성공적으로 보낸 NC는 지난해와 비슷한 53만7600명, 넥센과 삼성은 각각 48만명과 47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700만 관중 돌파를 위한 흥행 요소들은 많다. 관중진화형 구장인 광주-KIA 챔피언스필드가 개장했고, 울산 문수야구장도 새롭게 선보이면서 팬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대전·사직·잠실·문학 구장 등도 관중석과 전광판들을 새로 꾸미면서 팬들의 편의를 높였다. 또 활발했던 FA 선수들의 이동과 외국인 타자 도입 등으로 인한 전력 평준화로 흥미로운 순위 싸움이 예상, 프로야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임창용 삼성 복귀? 시카고 컵스서 방출...삼성 "빨리 영입하고 싶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미국 시카고 컵스에서 방출된 사이드암 임창용(38) 영입을 추진한다. 삼성과 임창용이 서로를 원하고 있는 만큼 세부 계약 내용만 합의되면, 임창용의 삼성행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송삼봉 삼성 단장 25일 "임창용은 임의탈퇴로 해외 진출을 한 우리 선수"라며 "150km의 공을 던지는 투수를 마다할 이유가 있는가. 당연히 최대한 빨리 영입하고 싶고, 임창용이 한국에 들어오는 대로 직

접 만나 연봉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메이저리그 재진입을 위해 컵스 스프링캠프에 합류했던 임창용은 지난 23일 마이너리그 캠프로 이동했고, 25일 방출 통보를 받았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임창용도 방출을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프로야구에서 임창용의 보유권은 삼성이 쥐고 있다. 삼성은 2007년 시즌 종료 후 일본 진출을 원하던

임창용을 '임의탈퇴'로 묶었다. 임창용은 자유계약선수(FA) 신분이 아닌 상태로 일본 야쿠르트 스왈로스에 입단했다. 류중일 감독은 이날 "프로야구 개막(29일)이 다가오는 만큼, 임창용이 빨리 결정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류 감독은 "임창용이 던지는 걸 직접 보고 보직을 결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도 "삼성으로 돌아온다면 볼레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남뉴스

## 야속한 '봄비'

### KIA-NC 연습경기 취소

먼 길은 온 NC가 비에 헛걸음을 했다. 25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예정됐던 KIA 타이거즈와 NC 다이노스와 연습경기가 우천취소됐다. 이날 두 팀은 오후 5시30분부터 경기를 갖고 개막에 앞서 세부 전력을 점검할 계획이었다. 오랜만의 만남이기도 했다. KIA와 NC는 지난해 9월30일 마지막 대결을 한 이후 다섯 달 만에 얼굴을 맞댔다. 지난 겨울 두 팀은 각각 일본과 미국에서 스프링캠프를 치렀다. 시범경기에서도 맞대결이 없었던 만큼 오랜 시간 얼굴을 볼 시간이 없었다. 챔피언스필드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상대이기도 하다. 두 팀은 오는 4월1일 챔피언스필드 개막전에서 상대로 만난다. 새구장에서 경기를 하게 되면서 그라운드에도 적응도 할 겸 성사된 경기였다. 그러나 1일 일정에 맞춰 조명탑을 켜고 경기를 하려고 했던 두 팀의 계획은 비에 무산됐다. 일찍 먼길을 왔던 NC에게는 무거운 발걸음이 됐다. NC는 지난 23일 대구구장에서 삼성과 시범경기 최종전을 치른 뒤 곧장 광주로 이동했다. 24일 광주에서 하루 휴식을 취한 뒤 25일 경기를 준비했지만 비에 1박2일의 광주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KIA도 경기를 치르지 못해 아쉽다. 한 차례 조명탑을 켜고 연습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 실전경기는 하지 못했다. 새 안방에서 야간 경기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비가 이를 방해한 것이다. 마운드 틀을 완성하려고 선동열 감독의 구상도 복잡해졌다. KIA는 이날 송승범을 선발로 해 마운드를 살필 예정이었다. 연습경기를 통해 김진우·심동섭 등 시범경기에서 제대로 공을 던지지 못한 선수들을 테스트 하고 마지막 1군 엔트리를 뽑 생각이었다. 아쉬운 대로 KIA는 27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야간 훈련을 진행한다. 26일 오후 2시에는 화하와 연습경기를 치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윤석민, 트리플A 등판 취소

고사라도 지내야 할 판이다. 하늘이 야속한 윤석민(볼티모어 오리올스)이다. 트리플A 노포크에서 빅리그를 두드리고 있는 윤석민의 마이너리그 선발 경기가 우천 취소됐다. 24일(현지시간) 윤석민은 미국 진출 후 첫 선발 등판을 할 예정이었다. 계약과 비자 발급 문제 등으로 시즌 출발이 늦어진 윤석민에게는 모처럼 마음껏 공을 던지며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만큼 내리는 비에 윤석민의 애가 났다. 윤석민은 앞선 두 차례 메이저리그 시범경기에서는 3이닝만을 소화했다. 벅 쇼월터 감독에게 보여준 공은 36개. 두 번째 등판도 비에 한 차례 연기되는 등 우려 곡절이 많았다. 결국 늦어진 결정과 부족한 시간에 윤석민은 마이너리그에서 차분하게 시즌을 준비하게 됐다. 발을 동동 굴러던 윤석민에게 불행 중 다행으로 자체 청백전 등판 기회가 주어지지는 했다. 윤석민은 이날 오후 사라소타 에드 스미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자체 연습경기에 선발등판해 3이닝 퍼펙트를 기록했다. 탈삼진도 하나 뽑아내는 등 빗속의 역투였다. 경기는 계속된 비에 3회 취소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주) 대원여행사**  
062)526-7000  
www.daewontour.com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대원빌딩 1층 (신세계백화점 시가역)  
※각 역에서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광주역 062)525-4835    광주송정역 062)941-3278

**완도해조류박람회 & 청산도·보길도 1박 2일**

날짜	시간	일정
1일차	07:00	용산역/서대천역/천안아산역/익산역출발
	09:30	광주송정역 집결 후 출발
	14:00	보길도 도착 후 관광
2일차	19:20	완도로 이동 후 숙소배정
	09:20	청산도 도착 후 자유관광
	13:00	코스1 무위사 국악전, 일출산 녹차밭 코스2 완도해조류박람회(04.11~05.11)
23:00	완도 출발 후 광주 도착	
익산역/서대천역/천안아산역/용산역도착		성인 151,000원~

**O-train으로 떠나는 힐링투어 1박 2일**

날짜	시간	일정
1일차	07:40	광주 집결 후 출발
	11:00	영월 도착 후 트레킹(서강길,셋길)
	14:30	선동 도착 후 관광(1박 2일 할영지)
2일차	16:30	태백역 도착 후 O-train 탑승
	19:00	영주역 도착 후 숙소배정
	08:00	영주부석사, 소수서원, 안동하회마을
19:00	광주도착 후 해산	
성인 190,000원~		

**보물섬 남해 기차여행 당일**

날짜	시간	일정
1일차	06:10	광주역/광주송정역 출발
	09:06	순천역 도착 후 남해 이동
	11:00	독일마을/원예예술촌/관신보라임/한국의 아름다운길
17:35	순천역 출발	
20:19	광주송정역/광주역 도착	
성인 57,000원~		

**KTX와 ITX타고 떠나는 남이섬 자유여행 당일,매일출발**

날짜	시간	일정
1일차	07:35~10:30	광주역 출발/용산역 도착
	11:00~11:55	용산역 출발/가평역 도착
	12:30~18:30	남이섬 도착 후 자유관광
2일차	19:28~20:23	가평역 출발/용산역 도착
	20:40~23:56	용산역 출발/광주역도착
	성인 75,000원~	

**KTX타고 떠나는 입진각 제3명굴 DMZ**

날짜	시간	일정
1일차	07:35	광주역 집결 후 출발
	10:27~11:10	용산역 도착 후 출발/입진각 도착
	11:40	입진각평화누리, 제3명굴, 도라전망대, 도라산역 관광
19:30	용산전차상가이용	
20:40~23:56	용산역 출발/광주역 도착	
성인 85,000원~		